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양육환경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진경

2011년 8월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양육환경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박정환

김진경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김진경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년 8월

<국문초록>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양육환경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김진경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정환

본 연구에서는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양육환경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수준의 불안을 경험한다. 이러한 불안은 부적응적 행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고 그 안에는 인간이 태어난 후 접하게 되는 최초의 사회집단인 가정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알려져 있다. 특히 부모와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 과정인 심리적 성장환경은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환경이며, 정서적·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위탁아동들에 대한 가정환경 및 그에 따른 심리적 경험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아동과는 다른 가정환경에서 생활하게 된 위탁아동들이 느끼는 불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양육환경이 불안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여 위탁아동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안정적인 위탁가정에서의 생활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정서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적인 가정위탁보호사업 추진을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위탁아동 중 83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심리적 성장환경과 양육환경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가설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독립표본 t-검증, 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 본 논문은 201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위탁아동의 불안수준은 약간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고, 불안과 심리적 성장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심리적 성장환경은 위탁아동의 불안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의 각 하위변인들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사랑, 수용, 존경, 상호친밀, 의사소통변인 모두 불안과 부적관계가 있었지만 특히, 의사소통 변인이 다른 변인들보다 불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셋째, 위탁아동의 양육환경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위탁아동의 성별만이 불안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위탁아동의 양육환경 중 성별, 위탁기간, 친형제 배치여부, 친부모 교류여부, 경제수준의 하위변인에 따른 불안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성별에 따라 여자가 남자보다 불안수준이 더 높았다.

결론적으로 위탁아동은 물리적 양육환경보다 심리적 성장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심리적 성장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적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심리적 성장환경의 하위변인 중 의사소통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족간에 의사소통이 부족하면 위탁아동의 부정적인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고 따라서 위탁가족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위탁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3
3. 연구모형	4
4. 연구의 제한점	5
II. 이론적 배경	6
1. 위탁아동의 심리적 특징	6
2. 위탁아동과 불안	10
3.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불안	14
4. 위탁아동의 양육환경과 불안	16
III. 연구방법	19
1. 연구대상	19
2. 연구도구	20
3. 연구절차	22
4. 자료처리 및 분석	23
IV. 연구결과 및 해석	24
1. 연구대상의 불안과 심리적 성장환경, 양육환경의 특성	24
2. 심리적 성장환경과 불안과의 관계	27
3. 심리적 성장환경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28
4. 양육환경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31

5. 양육환경에 따른 불안	32
6. 논의	34
V. 요약, 결론 및 제언	41
1. 요약	41
2. 결론	43
3. 제언	45
참고문헌	47
Abstract	53
부 록	56

표 목 차

<표Ⅱ-1> 제주특별자치도내 위탁아동 위탁사유	8
<표Ⅲ-1> 인구학적 통계	19
<표Ⅲ-2> 심리적 성장환경 질문지의 하위척도	20
<표Ⅲ-3> 양육환경 문항구성	21
<표Ⅳ-1> 불안, 심리적 성장환경 하위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24
<표Ⅳ-2> 위탁아동의 양육환경 특성분석	25
<표Ⅳ-3>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불안의 관계	28
<표Ⅳ-4> 불안에 대한 심리적 성장환경의 영향	29
<표Ⅳ-5> 불안에 대한 심리적 성장환경 하위변인의 영향	30
<표Ⅳ-6>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 각 하위변인간의 관계	30
<표Ⅳ-7> 불안에 대한 양육환경 각 하위변인의 영향	32
<표Ⅳ-8> 양육환경에 따른 불안	33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모형 5

[그림 II-1] 제주특별자치도내 위탁아동 위탁사유 모형 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인간관계를 맺으며 기본적인 인격을 형성해나가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게 된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집단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정을 찾게 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일차적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존재로 아동을 양육하는 최우선의 환경이기 때문에 아동에게 안정되고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의 가정은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질병,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부모의 사망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이혼 등에 따른 가족해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원인들로 인하여 아동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가정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아동들이 학대, 방임, 가출, 비행 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2000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국내에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게 되었고 각 시·도에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위탁보호는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가정에서 아동을 위탁하여 일정기간 동안 양육되어지는 아동복지서비스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통계자료(2010)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위탁가정의 수는 2003년 7,565세대, 2004년 10198세대, 2005년 12,562세대로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16,608세대로 6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탁아동들이 친가정을 떠나 위탁가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가게 되면 초기에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부적응행동을 보이는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위탁아동들은 위탁가정에 배치되기 이전에 친가정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나 부모의 방임,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 부모의 가출 등으로 인한 다양한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겪었던 경우가 많아 적응상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환경에서 더욱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오승환, 2000; 이선아, 2004; 이은미, 2001). 따라서 이전의 불안정한 심리적 문제를 다루지 않고 배치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 통계자료(2010)에 따르면 전체 위탁아동 16,414명중 10,937명이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다수의 조부모가 고연령으로, 이로 인한 건강문제 및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외에도 세대차이 및 저학력으로 인해 손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친인척 위탁아동들의 경우 위탁가정의 친자녀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고,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많아 위탁아동들에게 세심한 신경을 쓰기 어려워 위탁아동들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경험으로 위탁아동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며 문제아동이 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실제로는 많은 위탁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2006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로 실시된 국내 최초의 가정위탁아동패널연구자료에 의하면 위탁아동의 분리경험은 모두 동일하지만 친가족 관계 경험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분리경험 하에서도 개개인의 적응상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위탁아동이 심리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적응을 할 수 있다고 한다(가정위탁아동패널연구 2기, 2010).

이처럼 위탁아동의 심리적 안정에는 친부모 및 위탁부모와의 관계, 가정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여기서 가정환경은 크게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물리적 환경이 인간의 성격형성에 간접적 영향을 끼치는데 비해 심리적 환경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Clausen, 1966; 김미숙, 1984; 조송자, 1977)에서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위탁아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위탁가정의 가정환경에 관하여 아동 개인의 특성이나 위

탁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물리적 환경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양심영, 2003; 허남순, 2004), 위탁아동의 양육환경 및 배치에 관한 연구(이송이, 1999; 이영애, 2005; 이현숙, 2005) 등 위탁가정의 양육환경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김경민 외, 2009; 김민정, 2008; 양심영, 2009), 위탁아동의 경험에 대한 연구(김진숙 외, 2007; 정혜선 외, 2004; 조미숙, 2005) 등과 같이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의 다양한 심리적 경험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위탁아동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부모와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 과정인 심리적 성장환경은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환경이며, 정서적·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위탁아동들에 대한 가정환경 및 그에 따른 심리적 경험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탁아동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심리적 성장환경 및 생활하고 있는 양육환경과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나아가 위탁아동들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위탁아동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안정적인 위탁가정에서의 생활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정서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적인 가정위탁보호사업 추진을 돕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심리적 성장환경과 위탁아동이 느끼는 불안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1 심리적 성장환경은 위탁아동이 느끼는 불안과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은 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1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의 하위변인(사랑, 수용, 존경, 의사소통, 상호친밀)은 위탁아동의 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위탁아동의 양육환경은 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3-1 위탁아동의 양육환경의 하위변인(성별, 위탁기간, 친형제배치여부, 친부모교류여부, 경제수준)은 위탁아동의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4. 위탁아동의 양육환경에 따른 불안은 어떠한가?

가설 4-1 위탁아동의 성별에 따라 불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2 위탁아동의 위탁기간에 따라 불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3 위탁아동의 친형제배치여부에 따라 불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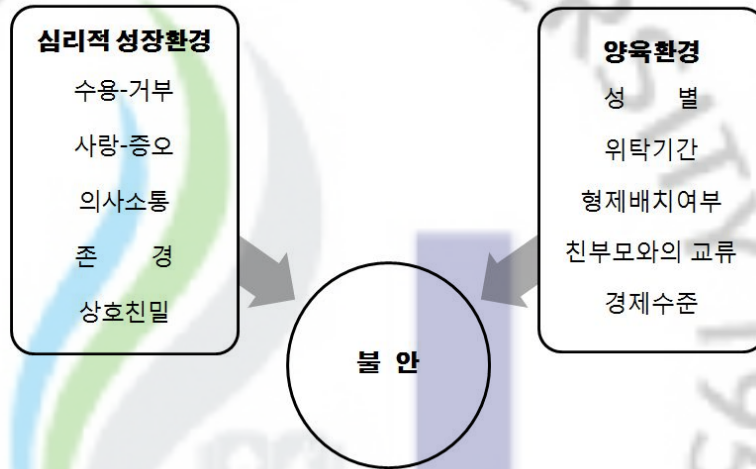
가설 4-4 위탁아동의 친부모와의 교류여부에 따라 불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5 위탁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불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성장환경과 양육환경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위탁아동의 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심리적 성장환경 및 양육환경이 위탁아동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각 독립변인의 하위변인들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I-1]과 같다.



[그림 I-1] 연구모형

4. 연구의 제한점

첫째, 연구대상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14~18세의 위탁아동이기 때문에 모든 위탁아동이 이러한 성향을 가진다고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심리적 성장환경은 문항과 하위변인이 많아 응답시간이 길어져 집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2가지 하위변인 중 위탁아동과 위탁부모와의 관계에서 여러연구(백정재·이재연, 1997; 심응철, 2009; 양심영, 2009; 장선희, 2009; 허연주, 2008)와 선행연구의 내적일치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긍정적인 성격을 지닌 5가지 하위변인으로 제한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양육환경을 구성하는 수많은 변인들이 있는데 이중 본 연구에서는 5개의 하위변인으로 제한하여 위탁아동의 불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연구방법에서 자기보고식 질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관적인 태도나 사회적으로 수용될 만한 것에 반응, 기분에 따른 반응 등을 질문지에 나타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양육환경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기초로 위탁아동의 심리적 특징, 위탁아동과 불안,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불안과의 관계, 위탁아동의 양육환경과 불안과의 관계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위탁아동의 심리적 특징

1) 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보호는 아동복지법 제2조 제7항에 의거 친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위한 일시적, 포괄적 서비스로, 아동을 일시적으로 대체가정에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아동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정위탁보호는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서 아동보호의 극대화,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도모하며, 아동이 친부모와 재결합 할 수 없을 때는 위탁아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위탁부모나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도록 하거나, 위탁아동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이현숙, 2005).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위탁가정이라는 새로운 가족체계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 위탁아동은 많은 심리적·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족 내에서의 경험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 적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활발한 가정위탁보호를 돕고자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전국 17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위탁부모 모집 및 교육, 위탁아동 배치, 위탁아동의 보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서적 지원 서비스 및 후원연계활동, 상담활동 등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정위탁보호는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의 관계에 따라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으로 구분되어 진다. 대리양육가정은 부모가 아닌 부양의무자에 의한 양육을 하는 가정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아동양육을 위한 양육비를 받고 있는 위탁보호 형태이다. 친인척위탁가정은 큰아버지, 고모, 이모 등 친인척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친인척 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선정하여 아동을 보호하게 하고 있는 위탁형태이다. 일반위탁가정은 아동과 혈연적 관계가 없는 일반 가정에서 아동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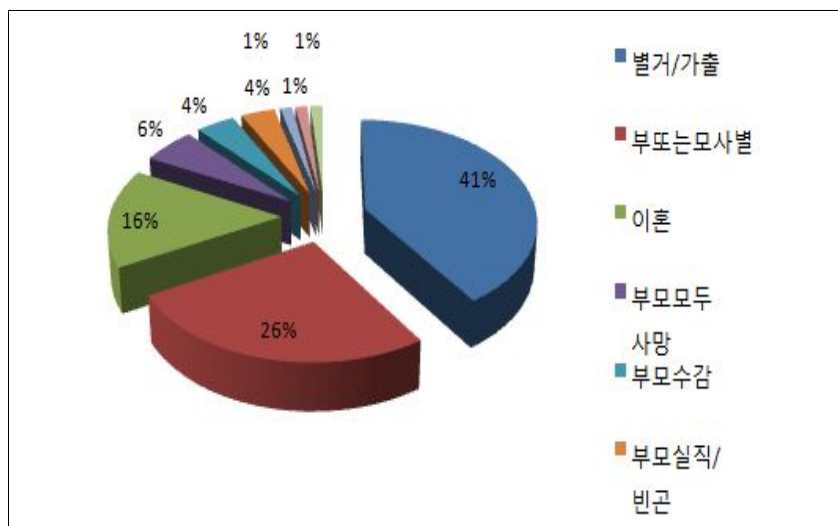
위탁아동은 부모의 이혼, 가출, 학대, 유기, 빈곤 등으로 인해 가정이 없거나 자신의 가정에서 친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부모를 대신해서 보살펴 줄 가정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과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가정위탁보호를 받을 수 있다.

2009년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위탁아동 15,738명을 의뢰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모의 별거/가출이 28%(4,399명), 이혼이 32.9%(5,178명)로 전체의 60.9%를 차지하는 등 가정해체 사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의 위탁사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내에는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284세대 386명의 위탁아동이 있고 이들 중 조부모와 거주하는 대리양육가정은 201세대 286명, 친인척위탁가정 68세대 82명, 일반위탁가정 15세대 18명으로 위탁사유를 살펴보면 다음 <표Ⅱ-1>, <그림Ⅱ-1>과 같다.

<표Ⅱ-1> 제주특별자치도내 위탁아동 위탁사유

(단위 : 명)

구 분	아동수 (%)
부모 모두 사망	22 (6)
부나 모의 사별	102 (26)
별거 / 가출	157 (41)
부모질병	5 (1)
부모수감	16 (4)
이 혼	60 (16)
부모실직 / 빈곤	14 (4)
학대방임	5 (1)
미혼모(부) / 혼외출생	5 (1)
합 계	386 (100)



[그림Ⅱ-1] 제주특별자치도내 위탁아동 위탁사유 모형

* 자료출처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2010. 12.)

3) 위탁아동의 심리적 특징

위탁아동들은 위탁가정에 배치되기 이전에 다양한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보인다. 이런 문제를 보이는 요인으로는 친가정에서의 경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방임, 학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정한 양육환경은 위탁아동에게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이 되고, 위탁 후 위탁가정에서 애착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주며 이러한 사실들은 여러 연구(Eizabeth, Orme, Robert&Linda, 2000; Kufeldt&Armstrong, 1995; Leathers, 2002)에서 확인되었다. 아동들은 위탁가정에 위탁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대개는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는데 사춘기 위탁아동 59명을 대상으로 한 Johnson, Yoken&Voss(1995)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대상자들 중 40%는 무엇 때문에 위탁보호가 되었는지 모르거나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정혜선·김진숙, 2004. 재인용).

이렇게 위탁아동들이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과정에서의 아동에게 친부모와의 분리와 위탁가정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다양한 정서를 느끼게 한다. Stahl(1990)은 위탁아동들은 위탁을 통하여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대부분이 자신의 친가정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며 외로움이나 버려짐, 슬픔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데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다고 느끼고 자신의 부모들이 그들을 원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누군가 즉, 위탁부모들도 자신들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러한 감정 외에도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아동들은 자신이 나뻐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한다고 했다.

Plumer(1992)는 친가족 없이 지낸다는 현실은 어떤 아동들에게는 공포를 느끼게 하는데 누가 자신들을 양육하게 되며 어디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연관되며 어떤 아동들은 위탁아동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부모를 가졌다는 수치심을 경험을 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정혜선과 김진숙(2004)의 위탁아동의 가정위탁에 관한 경험연구에 따르면 위탁아동들은 위탁가정에 배치되기 이전에 친가정에서 부모에게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으며 친부모와의 애착의 결핍으로 인하여 위탁가정에서도 관계형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왔다. 또 배치와 분리에 대한 경험과정을 분석한 결과 가정위탁이 자신의 문제로 인해 파생된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정서 또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상담 및 치료서비스 실시

등의 지원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위탁아동은 위탁가정에 배치되기 전, 친가정에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 이혼, 방임, 학대 등 부정적인 경험을 통하여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위탁가정에 배치되는 사례들이 많아 또다른 부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위탁부모의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배치하지만 대리양육가정이나 친인척위탁가정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아동이 배치되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위탁부모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위탁아동의 부정적 감정을 읽어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전문상담서비스를 연계하기가 어려운 가정이 많다.

이에 위탁아동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위탁아동의 심리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 위탁아동과 불안

불안은 현대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감정이며 뚜렷한 대상이나 목적이 없으면서도 어떤 위협이나 두려움이 올 것만 같이 생각되고, 그 위협이나 두려움에 대한 신체적 표현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또한 막연한 공포로 위협에 대한 감정을 수반하는 정서적 또는 신체적으로 불쾌한 상태를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불안은 보편적인 심리현상이며 정상적인 감정적인 반응이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불안이나 특정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는 불안 장애 등과 같이 병적인 상태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정신질환과 정신병리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의 핵심 정서가 불안인 경우를 볼 수 있다. 심리학적 견지에서는 불안을 인간의 내부적인 욕구의 갈등에서 나타나는 막연한 예감과 그것과 함께 수반되는 일정한 생리반응에서 오는 두려움이라고 말한다. 또한 사회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오해나 갈등 등과 같이 건전하지 못한 대인관계 내지는 능력의 한계, 소속 집단 내에서의 특정 개인의 고립과 같은 상황에서 비롯되는 열

등감을 불안의 원인으로 보았다.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들을 살펴보면 정신분석학적 이론, 사회심리학적 이론, 행동주의적 이론 등이 있다.

1) 불안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

정신분석학적 이론에서는 불안을 임박한 위협을 경고하는 경계신호로 여기는데, Freud(1926)는 불안을 신경증적 불안과 현실적 불안, 도덕적 불안으로 구분하였다. 현실적 불안이란 실제로 외부의 어떤 위협이나 위협에 대하여 느끼는 정서로서의 객관적 불안이고, 신경증적 불안이란 외부의 조건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표출되지 못한 억압된 욕구가 자아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양으로 축적되어 개인의 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불편한 증상으로 작용할 때 느끼는 정서라고 한다. 도덕적 불안은 초자아가 강한 사람이 자신의 도덕률에 위배되는 일을 하거나 생각을 했을 때 갖게 되는 불안으로 초자아로부터 오는 위협을 받을 때 일어나는 정서반응이라고 했다.

Freud의 이론 이외에도 불안에 관한 다양한 정신분석학적 이론들이 있어왔는데 이러한 이론들은 성격발달과 정신병리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불안이 중심적이었고 불안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갈등적인 추동 소망을 Freud만큼 강조하지는 않았다. 자아심리학, 대상관계이론, 자기심리학 등은 불안 증상을 억압된 추동 갈등보다는 분리와 개별화와 같은 발달적인 도전(Mahler, Pine&Bergman), 타인과의 실제적이고 내재화된 대상관계(Guntrip), 자기응집감과 관련된 갈등(Kohut) 등으로 보았다(이용승, 2000).

2) 불안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

Adler(1956)는 불안이 대인관계에서 오는 열등감에 의해 나타난다고 보았고, 이는 사회집단에 소속하고자 하는 즉, 사회적 유대(Social bonds)를 확고히 하기 위해 나타나는 감정의 의식체계라고도 했다. 그는 인간의 사회적 관심을 생리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인간은 생의 초기부터 사회적 환경과 접하게 되므로 이때부터 불안이 생겨나게 된다고 했다. Adler는 이러한 불안이 개인의 생활을 괴롭게 만들고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안락한 생활과 자신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방해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불안이 생성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인간적 유대를 통해서 불안이 해소될 수도 있다고 믿었다고 한다.

Horney(1945)는 Freud와는 달리 갈등이 인간의 성질 속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불안을 일으키는 갈등은 사회적 조건에 의해 야기된다고 하였다. 또 Sullivan(1953)은 이러한 불안의 근거를 대인관계에 두고 있으며 특히 유아기에 아동에게 중요한 사람인 양육자에게 거부될 때 불안정감이 싹튼다고 하면서 성격형성의 초기에 경험한 불안이 인간의 성장을 방해하고, 효과적인 생활을 저지시키는 요인에 대한 인간의 각성을 제한한다고 했다.

3) 이외의 불안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

행동주의적 이론에서 불안은 과거 징벌과 더불어 경험했던 어떤 자극에 대해 조건화된 공포반응이라고 하였다. 즉, 불안이란 유기체가 불안을 느꼈던 원인과 불안 반응과의 학습이라는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인지이론에서 불안은 자동적으로 비현실적이고 자기패배적인 형태 등 비적응적 사고 유형에 의한 고통이다. 또한 위협적인 환경을 개인이 제대로 통제할 수 없을 때에 불안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생물학적 이론들에서 불안은 다양한 원인을 지닌다. 이 원인들을 살펴보면 불안의 신체증상은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하며 유전학적으로 특정 개인이 다른 다수의 사람들과는 달리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병적으로 불안해지는 소인을 타고나기 때문이라는 유전학적 원인과 불안을 느낄 때 뇌의 다양한 구조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해부학적 원인 등이 있다.

4) Spielberger의 이론

Spielberger(1972)는 불안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보았고 상태불안(state anxiety)과 특성불안(trait anxiety)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상태불안은 개인의 일시적이거나 상황적인 불안으로 시간, 장면에 따라 강도가 변화하며 긴장이나 염려는 의식적으로 지각된 감정이므로 자율신경계의 활동을 증가시키며 객관적 위험과는 상관없이 어떤 환경을 개인이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면 상태불안 수준은 높아

진다고 하였다. 특성불안은 한 사람의 안정되고 특징적인 불안의 전반적인 수준으로 비교적 변화하지 않는 개인차를 갖는 동기나 획득된 행동성향이다. 즉 광범위한 자극상황을 위협한 것이나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성향이 개인에 따라 다르며 그러한 위협에 대해 상태불안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특성불안의 수준에 따라 상태불안의 차이가 있으며,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태불안 수준이 높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특성불안 수준이 상황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이선주, 1995).

본 연구에서는 위탁아동의 불안에 대하여 Spielberger의 특성불안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위탁아동의 비교적 안정된 성격적 특성의 불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5) 위탁아동의 불안

여러 선행연구(Elizabeth&Orme, 2000; Fehlberg, 1991; Kadushin, 1980; Martin, 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위탁아동은 상실감과 혼란감, 우울감,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원하지 않아 버린 것이 아닐까하는 버려짐에 대한 불안이나 자신이 나빠서 부모와 분리된 것이 아닐까하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또,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가정환경에 대한 수치심과 위탁부모에게 느끼는 양가감정 등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허남순(2004)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위탁아동이 대리양육아동과 친인척위탁아동보다 공격성이 높고 비행을 많이 하며 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와는 반대로 친인척위탁가정의 아동이 일반위탁가정 아동에 비해 보다 많은 심리, 행동상에 적응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Dubowitz&Sawyer, 1994)도 있다(양심영, 2009. 재인용). 또 허남순(2004)과 이현숙(200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탁아동의 정서불안이나 행동적 문제가 위탁 초기에는 일반위탁가정, 친인척위탁가정, 대리위탁가정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위탁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리위탁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위탁형태와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김민정(2008)의 연구에서는 70대 이상의 고령인 위탁부모인 경우 아동 공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위탁부모의 연령과 아동의 문제행동이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탁아동이 위탁보호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인 불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위변인들을 심리적 성장환경과 양육환경으로 나누어 위탁아동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3.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불안

1) 심리적 성장환경

성장환경이란 넓은 의미로 한 개인의 태내 성장을 포함하여 출생에서 현재까지의 성장에 관련된 모든 환경조건을 뜻한다고 할 수 있으며, 좁게는 가정환경에서부터 넓게는 일가친척, 이웃관계, 학교와 친구 등 개인이 살아가면서 접하는 모든 것이 성장환경이 될 수 있다. 가정환경은 크게 심리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환경은 물질적·실체적·경제적 조건을 말하며, 심리적 환경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과정을 의미한다.

부모의 아동 양육방식 및 태도를 포함한 가정의 심리적 분위기는 아동의 지적 발달과 함께 인성 등의 정의적 행동 특성의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권성희, 1990; 김선옥, 1985; 마정건, 1988; 정명교, 1983)에 의하면, 생활하고 있는 가정의 환경이 친애적일 때 자녀는 자발적, 책임적, 독립적, 사교적, 우호적이며, 가정의 환경이 거부적일 때는 비협동적, 비사회적, 비현실적이고 가정의 환경이 자율적일 때 자녀의 행동은 활동적, 진취적, 투쟁적이고 호기심이 현저하게 두드러진다고 하였다(이재연·백정재, 1997).

정원식은(1975)은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을 명확하게 양분할 수 없고 때로는 물리적 환경의 개념이 애매하게 사용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종래의 물리적 환경의 범주에 속하던 환경적 변인을 일부 조정하여 지위환경(status environment)으로, 종래의 물리적 측면에 해당하는 변인과 심리적 측면에 해당하는 일부 변인을 구조환경(structure environment), 그리고 종전의 심리적 환경

으로 취급되어 오던 것을 과정환경(process environment)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가정환경은 심리적인 부분과 물리적인 부분이 연속적으로 연결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환경적인 특징이 결정된다고 하여도 무방하다고 하며 가정환경의 구성 요인 중 가족성원과의 관계, 성격, 가정 분위기 등이 포함되는 심리적 환경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Schaefer(1959)는 부모를 대상으로 여러 연구에서 나온 변인들의 상관을 분석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온정-적대와 통제-자율로 분류하였고, Becker(1963)는 온정(수용)-적대(거부)와 제한-허용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Elder(1963)는 양육형태를 전제형, 권위주의형, 민주형, 평등형, 허용형, 방임형, 무시형의 7개 형태로 분류하였고, Baumrind(1967)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무관심의 네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연구에 참가한 아동들이 청소년기가 되면서 가족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Baumrind의 네 가지 유형은 권위형, 민주형, 지시형, 만족형, 비지시형, 무관심형의 6가지 유형으로 변화하였다.

심응철(1989)은 심리적 성장환경을 수용-거부, 사랑-증오, 자유-통제, 의사소통, 존경, 성취, 전통고수, 상호역할기대, 상호친밀, 변화지향, 집단응집력, 물질지향의 12개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장선희(2009)는 이러한 성장환경의 하위변인은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방법과 자녀들의 성격, 가치관, 행동양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내외통제성의 관련성을 연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형성시키고 발전하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2)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불안

가정위탁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생활의 중심이 친가정에서 위탁가정으로 옮겨짐에 따라 위탁아동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친가정에서 친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일반아동들이 경험하지 않는 독특한 경험이고 새로운 가족구조에 재적응해야 하는 심리적·발달적 과제를 함께 동반하고 있다. 더욱이 위탁가정을 통해서 양육·보호 받는 아동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 중 발생개연성이 높은 것이 바로 심리적 적응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진숙, 2007). 이러한 심리적 적응 문제는 아동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결정하고 이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 결과(이순형 외 2005; 이은희, 2003)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위탁아동은 친부모와 분리되어 위탁가정에 배치되는 경험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는데 강문희·김소연(2005), 노충래(2008)의 연구에 따르면 친부모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 분노, 억압, 대인관계문제, 위탁부모와의 애착을 형성할 경우 친부모에 대한 죄책감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환경 중에서도 특히 개인이 처한 물리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중 심리적 환경 요인이 자녀의 성격 발달이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영향이 있다는 김미숙(1984), 김영기(1988), 조건형(1995)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장환경을 심리적 성장환경과 양육환경으로 구분하여 위탁아동이 지각한 위탁가정의 양육방식을 토대로 심리적 성장환경이 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4. 위탁아동의 양육환경과 불안

1) 양육환경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가정에서 성장하고 발달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격형성 및 사회의 바람직한 가치관이나 행동을 습득하는 작업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게 된다. 가정환경은 아동이 태어나 자라며 양육되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되어진 모든 주변의 여건이나 상황을 말한다. 즉 가정환경은 탄생하는 순간에서부터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장소로서 인생의 출발점이기도 하며 인간은 여기에서 양육되고 부모형체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다고 할 수 있다.

정원식(1991)은 가정을 인간형성의 기초 작업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곳으로 특히 취학 전의 발달이 다른 시기에 비해 가장 왕성히 성취되며 다른 어떤 환경보다도 개인의 발달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친다고 보았다. Bloom(1964)은 흥미, 태도, 성격형성의 발달속도는 개체의 신체적 성장속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달려 있으며 초기의 양육환경에 있어서의 성격형성은 후기의 성격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학습의 이론적 근거로 가정환경이 중요시 되는 이유를 설명하였

다. 이처럼 가정은 아동의 인격형성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양육환경이며 기본적인 생활, 행동, 습관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성격형성과 후기 성격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가장 근본적인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Wolf(1964)는 가정환경을 지위변인과 과정변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지위변인으로는 교육, 지능, 직업, 학력, 수입, 거주지 등을, 과정변인으로는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으로 들었으며 황정규(1964)는 가정환경을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으로 구분하고 물리적 환경에는 거주지, 가옥, 문화적 시설, 경제생활 등을, 인적 환경으로는 가족관계 가정의 분위기를 지적했다. 청소년이 속한 가정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상태는 그 청소년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부모의 교육정도, 가업, 경제상태에 따라 청소년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 및 정서발달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일반화하고 있다(노유경, 2003. 재인용).

2) 위탁아동의 양육환경과 불안

가정환경의 변화로 심리적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위탁아동에게 위탁기간 동안 주어지게 되는 새로운 환경은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양심영(2003)의 연구에서는 위탁가정을 구성원 환경, 물리적 환경, 사회심리적 환경으로 구분하고 위탁아동의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위탁가정의 구성원의 환경은 인구학적 특성, 위탁관련 경험, 위탁아동의 특성을 포함시키고 물리적 환경에는 독방소유여부, 주거지역의 적합성, 지역 내 아동 시설이나 프로그램 여부를 측정하고, 사회 심리적 환경의 범주에는 갖고 구성원들의 위탁에 대한 태도, 아동에 대한 관심유무를 포함시켰다. 위탁아동의 정서적 적응에는 주거형태, 위탁아동의 성별, 친부모 방문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탁아동의 양육환경이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양육 환경에 따른 불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양심영(2003)이 분류했던 구성원의 환경과 물리적인 환경을 포함하여 양육환경의 하위변인을 구성하였다. 하위변인은 위탁아동이 생활하는 양육환경의 모든 변인 중에서 여러연구(김진숙·이근무, 2005; 김진숙·이혁구, 2007; 노충래 외, 2008; 양심영, 2003; 허남순, 2004)에서 위탁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밝혀진 성별, 위탁기간, 형제배치

여부, 친부모와의 교류 여부, 경제수준 등 몇 가지 하위변인을 설정하여 이 하위
변인들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에 있는 중·고등학생 위탁아동 중 14세부터 18세 위탁아동 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9세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고, 설문에 응답하기 어려운 지적 문제가 있는 위탁아동 3명,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위탁아동 2명을 제외하였다. 이들을 제외하여 제주도에 있는 14세부터 18세에 속하는 위탁아동은 총 200명으로 이중 90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불안수준척도 및 심리적 성장환경, 양육환경에 대한 설문지를 실시였고, 그 결과 설문거부의사를 밝힌 아동과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83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표Ⅲ-1> 인구학적 통계

(n=83)

변 인	문항구분	n(%)
성 별	남	38(46)
	여	45(54)
연 령	14세	14(17)
	15세	17(20)
	16세	12(15)
	17세	21(25)
	18세	19(23)

2. 연구도구

가. 심리적 성장환경 설문지

심리적 성장환경은 가정 내에서 인간상호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가정 환경을 이루는 것으로 연구 대상자들이 지각하는 심리적 성장환경을 측정하기 위해서 심응철이(1992)이 1992년에 그의 논문에서 사용했던 성장환경 질문지 (PGES)를 사용하였다. 심리적 성장환경에 대한 하위요인은 수용-거부, 사랑-증오, 자유-통제, 의사소통, 존경, 성취, 전통고수, 상호역할기대, 상호친밀, 변화지향, 집단응집력, 물질지향 등 12개 하위변인으로 문항은 총 74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상에서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내용에 부합 되는 문항을 하위영역에 준거하여 수용, 사랑, 존경, 상호친밀로, 의사소통으로 구성된 5개 하위변인 총 32문항,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의 요인별 문항구성 내용은 <표Ⅲ-2>와 같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장환경이 좋다고 할 수 있으며 진술문이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표Ⅲ-2> 심리적 성장환경 질문지의 하위척도

하위 요인	문항수	문 항	Cronbach's α
수 용	5	1, 7, 18, 23, 31	.897
사 랑	6	3, 6, 16, 17, 19, 20	.884
존 경	6	4, 8, 9, 14, 21, 30	.879
상호친밀	5	24, 26, 27, 28, 29	.880
의사소통	10	2, 5, 10, 11, 12 13, 15, 22, 25, 32	.905
전 체	32		.909

심응철(1992)의 연구에서 심리적 성장환경질문지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87이었으며, 허연주(2008)의 연구에서 고등학생 299명, 대학생 232명을 대상으로 알아본 Cronbach's α 는 .90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나. 양육환경

본 연구에 맞게 선행연구(김미리(2007), 제주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와 위탁 유형별 양육환경 연구; 이영애(2005), 가정위탁양육환경에 따른 위탁부모의 부모 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 최종렬(2005), 아동 위탁가정 유형별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조사문항을 재구성하였다.

문항은 총 11문항으로 양심영(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적 가정환경, 물리적 양육환경을 함께 양육환경으로 설정하여 위탁아동의 성별, 나이, 위탁유형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과 위탁기간, 친형제 배치 여부, 위탁사유, 친부모와의 교류여부, 주거형태, 월소득 등의 질문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Ⅲ-3> 양육환경 문항구성

구분	문항수	문항내용
위탁아동 양육환경	11	1. 성별, 나이, 위탁유형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 2. 위탁기간 3. 형제배치 여부 4. 친부모와의 교류 : 교류여부, 만나는 횟수 5. 경제수준 : 가족구성원 수, 월수입(근로소득, 수급비, 후원금 포함), 주거형태

다. 불안

Spielberger(1970)가 제작한 상태-불안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 STAI)를 번안한 김정택(1978)의 검사 중 지속적이며 개인차를 지닌 동기나 획득된 행동성향을 알 수 있는 특성불안검사(STAI-II)를 사용하였다. 특성불안이란 지속적이며 개인차를 지닌 동기나 획득된 행동성향을 말하는 것으로 비교적 안정된 성격 특성의 불안을 말한다.

총 20문항으로 질문의 내용이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같은가, 다른가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7문항(1,6,7,8,13,16,19)은 역순으로 계산된다. 각 척도는 불안상태의 강도가 증가하는 수준을 연속적으로 나타내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총 점수는 20점에서 80점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척도의 낮은 점수는 차분함과 침착한 상태를 나타내고 중간정도의 점수는 적당한 수준의 긴장과 염려를 나타내주며 높은 점수는 공포에 접근하는 과도한 염려와 두려움의 상태를 반영해 준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윤경(199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5로 검증되었으며, 조부모손자녀세대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성지혜(2001)의 연구에서도 신뢰도는 Cronbach's α .85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0이었다.

3. 연구절차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상하여 지도교수의 검토 후 수정작업을 거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제주도내에 있는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위탁아동 90명을 대상으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원이 직접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심리적 성장환경 및 불안측정검사지를 배포 및 수거, 양육환경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이 설문에 응답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에 응답하는

사이 위탁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양육환경 조사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아동이 부재중일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해 메모를 남기고 추후 재방문을 통해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는 설문지의 각 문항을 점수화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위탁아동의 양육환경, 불안에 대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셋째,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불안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심리적 성장환경의 각각의 하위요인(수용, 사랑, 존경, 상호친밀, 의사소통)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위탁아동의 양육환경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양육환경의 하위변인들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위탁아동의 양육환경 중 성별, 위탁기간, 친형제 배치여부, 친부모와의 교류여부 및 만남 횟수의 차이에 따라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증,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의 불안과 심리적 성장환경, 양육환경의 특성

위탁아동의 불안, 심리적 성장환경 하위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IV-1>과 같이 나타났다.

<표IV-1> 불안, 심리적 성장환경 하위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83)

	M	SD
불안	46.05	7.92
수용	16.55	3.55
사랑	23.71	4.11
심리적 성장환경 존경	22.47	4.84
상호친밀	18.13	3.64
의사소통	35.92	6.93

위탁아동의 불안은 80점 만점에 M=46.05로 높지 않은 약간 불안한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심리적 성장환경의 하위변인들을 특성을 살펴보면 수용과 상호친밀이 각 5문항으로 M=16.55, M=18.13, 사랑과 존경이 6문항으로 M=23.71, M=22.47, 의사소통이 10문항으로 M=35.92의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위탁아동들의 심리적 성장환경은 비교적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에 대한 양육환경의 특성으로 위탁유형, 위탁기간, 가족구성원 수, 친형제배치 여부, 위탁사유, 친부모 교류 여부, 친부모 만남 횟수, 주거형태, 월소득 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IV-2>와 같다.

<표IV-2> 위탁아동의 양육환경 특성 분석

변 수	속 성	빈 도	비 율
위탁유형	대리양육	56	67.5
	친인척위탁	20	24.1
	일반위탁	7	8.4
	합 계	83	100.0
위탁기간	2년	2	2.4
	3년	3	3.6
	4년	8	9.6
	5년 이상 10년 이하	41	49.4
	10년 이상	29	34.9
	합 계	83	100.0
가족구성원 수	2명	13	15.7
	3명	31	37.3
	4명	16	19.3
	5명 이상	23	27.7
	합 계	83	100.0
친형제배치 여부	예	55	66.3
	아니오	28	33.7
	합 계	83	100.0
위탁사유	부모사망	6	7.2
	아버지사망/어머지가출(재혼)	23	27.7
	어머니사망/아버지가출(재혼)	1	1.2
	부모이혼	14	16.9
	부모 행방불명 또는 질병	28	33.7
	경제적 이유	7	8.4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수감	3	3.6
	가정폭력/아동학대	1	1.2
	기 타	-	-

	합 계	83	100.0
친부모 교류여부	예	26	31.3
	아니오	57	68.7
	합 계	83	100.0
친부모 만남횟수	1년에 1번	9	10.8
	6개월에 1번	2	2.5
	3개월에 1번	8	9.6
	1달에 1,2번	3	3.6
	만나지 않는다	61	73.5
	합 계	83	100.0
주거형태	자 가	18	21.7
	전 세	7	8.4
	월 세	24	28.9
	영구임대아파트	21	25.3
	기 타	13	15.7
	합 계	83	100.0
월소득	월 100만원 이하	41	49.4
	월 150만원 이하	16	19.3
	월 200만원 이하	12	14.5
	월 200만원 이상	14	16.9
	합 계	83	100.0

먼저 조사대상의 위탁유형으로는 83명 중 대리양육 56명(67.5%), 친인척위탁 20명(24.1%), 일반위탁 7명(8.4%)으로 조사되었다. 이 위탁아동들의 위탁기간을 살펴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위탁아동이 41명(49.4%), 친형제와 함께 위탁 가정에 배치된 위탁아동이 55명(66.3%)로 상당수의 위탁아동이 친형제와 함께 배치되어 장기간 위탁가정에서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게 된 위탁사유로는 부모행방불명 또는 질병이 28명

(33.7%)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는 아버지 사망/어머니 가출(재혼)이 23명(27.7%)이었다. 또 친부모와의 교류여부를 묻는 응답에서는 23명(31.3%)가 교류하고 있지 않다, 57명(68.7%)가 교류를 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 친부모와의 만남 횟수 결과와 대조해 봤을 때 수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친부모와 연락을 하고 있기는 하나 재혼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만나지는 못하고 가끔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는 위탁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다.

위탁가정의 경제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주거형태와 월소득을 조사하였다. 위탁가정의 주거형태는 월세 24명(28.9%), 영구임대아파트 21명(25.3%) 순이었는데 기타로 응답한 경우 마을이나 가까운 지인이 무료로 임대해 준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로 자가와 전세를 제외한 69.9%의 위탁가정이 주거가 불안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위탁가정의 월소득은 월 100만원 이하가 41명(49.4%)으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의 대리양육가정이 위탁유형의 6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내의 위탁가정의 위탁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위탁가정 5%, 친인척위탁가정이 24%, 대리양육가정이 71%로 70% 이상이 연로하신 조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일반위탁가정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친인척위탁가정과 달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는 수급비용만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대리양육가정의 대부분임을 감안하면 위탁가정의 경제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심리적 성장환경과 불안과의 관계

심리적 성장환경의 각 하위변인들이 위탁아동의 불안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의 <표IV-3>과 같다.

<표IV-3>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불안의 관계

(N=83)

심리적 성장환경 불안	수용	사랑	존경	상호친밀	의사소통
불안	-.280*	-.288**	-.263*	-.364**	-.495**

*p<.05, **p<.01, ***p<.001

<표IV-3>을 살펴보면 심리적 성장환경의 하위변인과 불안은 수용(-.280), 존경(-.263)은 p<.05 수준에서 불안과 부적 상관이 있다. 다음으로 사랑(-.288)과 상호친밀(-.364), 의사소통(-.495)과 불안은 p<.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위탁가정에서 위탁아동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로 대하고 위탁아동이 위탁부모를 존경하고, 위탁가정에서 사랑받고 있고 상호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낄 때 위탁아동의 불안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각 불안과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는 하위변인들은 위탁아동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변인들이며 이러한 양육태도를 위탁부모가 많이 보일수록 위탁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적게 느끼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적 성장환경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심리적 성장환경을 독립변수로 불안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하였다.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불안의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IV-4>와 같았다.

<표IV-4> 불안에 대한 심리적 성장환경의 영향

	심리적 성장환경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β		
불 안	(상수)	64.106	4.658		13.763	.000
	심리적 성장환경	-.155	.039	-.401	-3.943	.000
R ² =.161						

<표IV-4>를 살펴보면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은 불안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위탁아동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성장환경은 부적영향(-.401)을 미치고 있다. 불안에 대한 심리적 성장환경의 설명량은 16.1%로 나타났다.

이는 물리적 환경보다 개인이 지각하는 심리적 성장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조송자, 1977; 김미숙, 198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정선희(2009)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영향이 그들의 심리적 성장환경이나 자아존중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랑, 수용, 존경, 상호친밀, 의사소통 등 심리적 성장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이 제대로 형성되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도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병기(2010)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영희(2008) 외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듯이 심리적 성장환경은 자아존중감과 함께 불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의 각 하위변인이 불안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의 5가지 하위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IV-5>와 같다.

<표IV-5> 불안에 대한 심리적 성장환경 하위변인의 영향

	심리적 성장환경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β		
불안	(상수)	66.269	4.024		16.470	.000
	의사소통	-.564	.110	-.495	-5.126	.000
R ² =.245						

<표IV-5>를 살펴보면 위탁아동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성장환경의 하위변인 중 의사소통 변인이 불안에 부적영향(-.495)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안에 대한 심리적 성장환경 하위변인의 설명량은 24.5%로 나타났다.

<표IV-6>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 각 하위변인간의 관계

(N=83)

	불안	수용	사랑	존경	상호친밀	의사소통
불안	-					
수용	-.280*	-				
사랑	-.288**	.697**	-			
존경	-.263*	.699**	.748**	-		
상호친밀	-.364**	.640**	.751**	.761**	-	
의사소통	-.495**	.692**	.696**	.713**	.838**	-

*p<.05, **p<.01, ***p<.001

<표IV-5>와 <표IV-6>을 종합해 살펴보면 심리적 성장환경의 하위변인 5가지는 모두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심리적 성장환경의 하위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변인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의사소통변인의 영향력이 커서 사랑, 수용, 존경, 상호친밀변인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허연주(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으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이면 일반적으로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이 떨어지고 가정문제를 유발시켜 자녀의 자살행각에 영향을 주거나 비행친구와의 만남을 촉진시킴으로서 청소년 자녀의 비행을 유발할 수 있다는 김선남(1994), 유혜경(1986)의 연구결과도 이러한 위탁아동의 불안에 대한 의사소통 변인의 설명력을 뒷받침할 수 있겠다.

따라서 위탁아동의 불안에 가장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탁가정에서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 등 가족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친부모와의 분리로 인하여 생기는 부적응적 행동이나 여러 상황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위탁가정 내에서 위탁아동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것은 위탁아동들의 불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는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위탁아동은 위탁가정에서 의사소통과 같은 행동적인 변인에 의해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다.

4. 양육환경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위탁아동의 양육환경의 각 하위변인이 불안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양육환경의 하위변인들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육환경의 5가지 하위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IV-7>과 같다.

<표IV-7> 불안에 대한 양육환경 하위변인의 영향

	심리적 성장환경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β		
불안	(상수)	48.289	1.234		42.997	.000
	성별(남)	-4.973	1.660	-.316	-2.996	.004
R ² =.100						

<표IV-7>을 살펴보면 위탁아동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환경의 하위변인 중 성별 변인이 불안에 부적영향(-.316)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안에 대한 양육환경의 각 하위변인의 설명량은 10.0%로 나타났다.

5. 양육환경에 따른 불안

1) 위탁아동의 양육환경에 따른 불안

위탁아동의 양육환경이 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탁아동의 양육환경을 성별, 위탁기간, 친형제 배치여부, 친부모와의 교류여부, 위탁가정의 경제수준의 하위변인으로 구분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위탁아동의 성별에 따라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IV-8>과 같다.

<표IV-8> 양육환경에 따른 불안

	구 분	N	M	SD	t(F)	p
성별	남 자	38	43.32	7.13	-2.996	.004
	여 자	45	48.29	7.86		
위탁기간	1년 이상 5년 이하	13	45.00	6.96	1.01	.369
	5년 이상 10년 이하	41	45.15	8.70		
	10년 이상	29	47.69	7.00		
친형제 배치여부	형제배치	55	45.94	7.62	-.107	.915
	단독배치	28	46.14	8.54		
친부모 교류여부	친부모와 교류함	26	45.58	8.74	.114	.737
	친부모와 교류 안함	57	46.21	7.55		
주거형태	자가	18	46.78	10.78	1.215	.311
	전세	7	44.71	5.88		
	월세	24	45.96	7.65		
	영구임대 아파트	21	43.67	7.42		
	기타	13	49.54	3.86		
월소득	월100만원 이 하	41	46.90	7.82	.944	.423
	월150만원 이 하	16	43.06	7.20		
	월200만원 이 하	12	46.25	8.77		
	월200만원 이 상	14	46.57	8.14		

<표IV-8>을 살펴보면 남자의 불안평균은 43.3, 여자의 불안평균은 48.29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 1, 2학년 500명을 대상으로 특성불안검사를 실시한 이선주(1994)의 연구에서도 특성불안수준에 있어서 남자(M=47.40, SD=8.8), 여자(M=49.29, SD=9.3)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중고등학생 소년소녀가장세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이윤경(1994)의 연구와 계은주(2001) 등 기존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특성불안을 연구한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리고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를 한 김민정(2008)의 연구에서도 남아가 여아보다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위탁아동의 위탁기간과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될 때 친형제가 함께 배치되었는지에 따라 위탁아동의 불안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위탁기간과 친형제 배치여부에 따른 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친부모와의 교류여부에 따른 위탁아동의 불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구대상 중 대다수의 위탁아동이 친부모와 교류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 친부모와의 교류여부에 따른 위탁아동의 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위탁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불안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위탁가정의 경제수준은 위탁가정의 주거형태와 월수입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상당수의 위탁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위탁가정의 경제수준은 위탁아동의 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6.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양육환경이 위탁아동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위탁아동의 불안수준을 측정하고 심리적 성장환경과 양육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서로에게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위탁가정을 방문하면서 관찰한 사항 및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내의 14~18세의 위탁아동 83명의 불안을 살펴본 결과 80점 만점에 평균 46.05점으로 높지 않은 약간 불안한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전국에 있는 위탁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가정위탁아동패널연구(2010)를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개개인의 특성 및 다양한 친가족 관계 경험 등으로 인하여 위탁아동의 불안수준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위탁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관찰할 수 있는 점은 많은 수의 위탁아동이 무력감이나 무의미와 같은 사회구조와 관련된 개인의 주관적 경험으로서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Maddi(1980)는 무력감은 개인이 추구하는 결과를 스스로의 행동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낮은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대가 낮은 소외된 사람들은 결과에 대한 통제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이나 강력한 타자, 운 또는 운명에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 무의미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예측이 내려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윤나리, 2004. 재인용).

도내에 있는 위탁아동 중 많은 수의 아동들이 일반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낮은 학업성적을 보이며 이로 인하여 인문계 고교보다는 전문계 고교 진학률이 높고 대학진학에 있어서도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학 진학률이 높다. 이는 위탁가정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이 크게 작용하는데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와 같이 대다수의 위탁가정이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며 대리양육가정의 경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위탁아동의 경우 또래 일반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교육이나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빠르게 변화는 교육환경에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업성적이 낮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성적이 좋다고 해도 타지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위탁아동에게 학습된 무력감이나 무의미를 심어줄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반영되어 심리적인 불안에도 영향을 미쳐 위탁아동의 불안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불안수준이 낮게 나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가설 2-1인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의 하위변인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사랑, 수용, 존경, 상호친밀, 의사소통, 이 다섯 가지 하위변인 중에서 위탁아동의 불안에 가장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사소통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위탁가정에서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 등 가족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불안수준이 70점으로 최고수준이 나왔던 위탁아동의 양육환경을 살펴보면 이 위탁아동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90세가 넘는 조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대리양육가정 아동이다. 이 가정은 거주환경이 아주 열악한 수준으로 조모는 위탁아동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손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지만 너무 연로하시고 이로 인한 세대차이로 인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조부모의 신체 및 정신 건강과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각은 아동의 성인역할 부담에 영향을 주고 조부모의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아동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조부모의 신체건강은 아동의 죽음불안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이현주(2007)의 연구와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조부모의 경우 부모와의 양육태도와 양육실제의 차이로 인해 아동의 정서적 적응상에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 천희영 외 여러 연구자(2006)의 연구를 결과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이 위탁아동이 조모와 단 둘이 거주하고 있으며 친부모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의 위탁아동이 성인역할 부담과 조모의 고령으로 인한 죽음불안을 느낄 수 있는 상황과 조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까운 주변에 위탁아동의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함께 대화를 나눌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위탁아동의 불안에 영향을 미쳤다고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셋째로, 연구문제 3과 연구문제 4의 가설을 확인하고자 양육환경을 성별, 위탁기간, 친형제 배치여부, 친부모와의 교류여부, 위탁가정의 경제수준의 하위변인으로 구분하여 양육환경이 위탁아동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독립표본 t-검증과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탁아동의 성별이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위탁기간, 친형제 배치여부, 친부모와의 교류여부, 경제수준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위탁아동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위탁아동의 성별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가 불안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Spielberg는 특성불안은 주로 어릴 때 부모로부터의 처벌이나 제재를 경험하면서 형성되고 누적된 결과라고 하였는데 이는 유교적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여아에게 남아보다 더 많은 통제를 가하는 등의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불안수준이 가장 높게 나온 위탁아동과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온 위탁아동을 순위별로 3명씩 비교해 보았을 때 높은 수준의 위탁아동의 성별은 모두 여자였으며 낮은 수준의 위탁아동은 모두 남자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환경을 분석해 본 결과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는 친인척과 생활하고 있는 위탁아동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대리양육가정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세심하고 민감한 심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을 지어 생각해 보면 앞서 말한바와 같이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조부모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신의 욕구와 갈등을 실제 생활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억압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아 결국 불안감이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외에 통계적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위탁기간, 친형제 배치여부, 친부모와의 교류여부에 따른 불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위탁아동의 위탁기간에 따른 불안은 위탁기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위탁기간이 2년 정도인 아동들이 높은 불안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위탁보호 초기에 안정적인 관계형성과 지속성 보장, 집중적 서비스 제공이 아동의 불안감소와 적응의 성패요인이며, 아동의 안녕, 행동상의 기능, 정서상 발달, 학업수행능력 영역에서 전반적인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여러학자들(Coutney&Wong, 1996; Fanshel et al., 1990; Minty, 1999)의 연구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위탁보호 초기 1~2년이 아동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의미한 시기이며(김진숙, 2006), 2년 이상의 위탁보호를 받은 아동이 정서적으로 반응을 더 잘 하였으며 2년 이하의 초기 단계에서의 적응을 위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김민정(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위탁아동이 친부모와 분리된 후 위탁가정에 배치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며 실제 직접 면담을 한 위탁 초기의 위탁아동들의 경우 부적응 및 불안에 따른 야뇨증, 도벽, 거짓말 등과 같은 부정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위탁가정의 가족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서적 지지 등을 통하여 위탁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을 찾는다. 특히 일반위탁아동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으로 인한 부적응적 행동이 위탁기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위탁가정과 친가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원만한 생활을 하는 사례들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2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위탁가정에서의 생활과 가족들과의 친밀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위탁아동들은 위탁초기에 느꼈던 불안감이 감소되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된다. 이때부터 위탁가정 외적인 요인들, 즉 학교생활이나 친구문제, 혹은 진학에 따른 진로 및 성적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불안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연구 대상인 위탁아동의 연령이 청소년임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나 발달과업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불안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전체적인 불안수준을 살펴보면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위탁아동의 불안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본 연구와 같은 불안측정검사지를 사용하여 조손가정 아동 117명을 대상으로 우울 및 불안에 관하여 연구한 성지혜(2001)의 연구 중 조부모의 연령에 따른 불안의 차이의 결과와 함께 살펴볼 수 있겠다. 이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조부모의 연령이 60세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불안수준이 6점 정도 차이가 나고, 76세 이상인 경우 불안수준이 평균 5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70%이상의 위탁아동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대리양육가정임을 감안할 때 10년 이상 위탁가정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 위탁부모님의 연령이 고령화되어가며 이에 따른 건강악화 및 경제활동능력이 저하되고 위탁부모의 사망 후 위탁아동의 거처문제 등 또다른 문제상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위탁아동의 불안에 반영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될 때 친형제가 함께 배치되었는지에 따라 불안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형제가 함께 배치된 위탁아동의 불안수준이 단독으로 배치된 위탁아동보다 조금 더 낮았다. 이는 2007년에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위탁환경과 사회적지지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곽연숙의 연구에서 친형제 배치여부에 따라 위탁아동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위탁아동이 친형제와 함께 배치되는 것이 위탁가정에서의 적응에 영향력이 적으며 따라서 위탁아동이 느끼는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적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Meier(1962)는 형제자매와의 분리경험에 대하여 위탁아동들이 예민하게 느끼고, 기억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그는 아동들이 경험하는 친부모, 형제 및 익숙한 것들과의 분리가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실제로 기관을 통해서 실행되기 때문에 기관이 아동들의 적개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정혜선·김진숙, 2004. 재인용). 실제로 3세에 위탁가정에 배치되었던 여아의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이 위탁가정에 배치되는 과정에 직접 개입을 하고 친부모와 만날 때 함께 이동을 했었다. 이러한 경험 때문인지 친가정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상담원들을 보면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상담원은 친부모나 위탁부모와 분리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위탁아동의 친형제배치 유무에 따라 불안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이유로 혈연관계를 중요시하는 지역의 정서와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제주특별자치도내 위탁가정의 70%이상이 대리양육가정이며 다음으로 친인척 위탁가정의 높은 것은 자신의 혈연이기 때문에 손자녀 혹은 조카를 직접 돌보고자 하는 의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며 형제자매인 경우 분리하여 위탁하기보다는 함께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배치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리고 우선 조부모와 친인척이라는 혈연관계가 위탁아동에게는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위탁가정보다는 편안하게 느껴져 불안이 감소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는 위탁부모의 위탁동기가 혈연관계일 때 긍정적 세계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김민정(2008)의 연구와 옥경희(2005)의 조부모나 친인척을 통해

양육되는 아동의 사회적응력 발달이 부모의 양육을 받는 아동보다는 부정적이지만 혈연관계가 아닌 타인에 의한 위탁양육을 받는 아동보다는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와 혈연적 본능이 위탁양육자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우호적인 태도로 연결된다는 김진숙(2007)의 연구와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 일반위탁아동의 위탁연결 시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 서로 다른 가정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함께 위탁하는 것이 위탁가정에서의 적응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최대한 함께 위탁배치 될 수 있는 위탁가정을 찾아 함께 위탁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친부모와 교류하지 않는 위탁아동이 친부모와 교류하고 있는 위탁아동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지혜가 2001년에 조부모손자녀세대 아동을 대상으로 불안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부모님을 만나는 아동이 만나지 못하는 아동에 비해 더 우울하고 불안하다는 결과와 Leathers(2003)가 위탁아동이 친부모를 자주 만날 때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되며 특히 소속감 갈등은 위탁부모와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이런 정서적 혼란이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된다는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조사의 특성상 사례관리를 하는 상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친부모와 교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류하지 않음에 체크를 했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사람은 누구나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수준의 불안을 경험한다. 이러한 불안은 부적응적 행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고 그 안에는 인간이 태어난 후 접하게 되는 최초의 사회집단인 가정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정환경 중에서 심리적 성장환경과 양육환경 모두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일반아동과는 다른 가정환경에서 생활하게 된 위탁아동들이 느끼는 불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양육환경이 불안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심리적 성장환경과 위탁아동이 느끼는 불안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은 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위탁아동의 양육환경은 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4. 위탁아동의 양육환경에 따른 불안은 어떠한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구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1 : 심리적 성장환경은 위탁아동이 느끼는 불안과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 가설 2-1 :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의 하위변인(사랑, 수용, 존경, 의사소통, 상호친밀)은 위탁아동의 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1 : 위탁아동의 양육환경의 하위변인(성별, 위탁기간, 친형제배치여부, 친부모교류여부, 경제수준)은 위탁아동의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1 : 위탁아동의 성별에 따라 불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2 : 위탁아동의 위탁기간에 따라 불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3 : 위탁아동의 친형제배치여부에 따라 불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4 : 위탁아동의 친부모와의 교류여부에 따라 불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5 : 위탁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불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지 구상 및 수정작업을 거쳐 연구대상 선정, 조사실시, 통계처리 및 자료 분석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14~18세의 위탁아동으로 선정하여 이들 중 9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실하게 응답한 83명을 최종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양육환경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심리적 성장환경은 심응철이(1992)이 1992년에 그의 논문에서 사용했던 성장환경 질문지(PGE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내용에 부합되는 문항을 하위영역에 준거하여 수용, 사랑, 존경, 상호친밀, 의사소통으로 구성된 5개 하위변인 총 32문항, 5점 Likert척도로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재구성하였다.

양육환경은 김미리(2007), 이영애(2005), 최종렬(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총 11문항으로 위탁아동의 성별, 나이, 위탁유형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과 위탁기간, 친형제 배치 여부, 위탁사유, 친부모와의 교류여부, 주거형태, 월소득 등의 질문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불안검사는 Spielberger(1970)가 제작한 상태-불안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 STAI)를 번안한 김정택(1978)의 검사중 지속적이며 개인차를 지닌 동기나 획득된 행동성향을 알 수 있는 특성불안검사(STAI-II)를 사용하였고, 총 20문항이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조사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원이 직접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심리적 성장환경 및 불안측정검사지를 배포 및 수거, 양육환경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처리 분석은 SPSS for Window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독립표본 t-검증, 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위탁아동의 불안수준은 약간 불안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불안과 심리적 성장환경은 불안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변인이 다른 변인들보다 불안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위탁아동의 양육환경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육환경의 하위 변인 중 성별이 위탁아동의 불안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위탁아동의 양육환경의 하위변인에 따른 불안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불안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 결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아동의 불안수준을 확인해 본 결과 총점이 높을수록 일반적인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연구결과 위탁아동의 불안 수준은 약간 불안한 수준이었다. 불안과 심리적 성장환경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불안과 심리적 성장환경은 부적 상관이 있었고, 위탁아동이 지각하는 심리적 성장환경이 높을수록

불안수준은 낮고, 심리적 성장환경이 낮을수록 불안이 높았다.

둘째, 위탁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의 하위변인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상관관계에서는 사랑, 수용, 존경, 상호친밀, 의사소통변인 모두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의사소통 변인이 다른 변인들보다 불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위탁가정에서 위탁아동과 가족들간에 의사소통이 부족할 경우 위탁아동의 부정적인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위탁아동이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일 때 그 어떤 양육태도보다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위탁아동의 양육환경 중 성별 변인만이 불안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위탁아동의 불안에 성별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청소년기에 접어든 위탁아동들에게 성별을 고려하여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정서적 지원을 실시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불안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위탁아동의 양육환경 중 성별, 위탁기간, 친형제 배치여부, 친부모 교류 여부, 경제수준의 하위변인에 따른 불안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위탁아동의 불안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불안수준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탁아동은 여자가 남자보다 불안수준이 더 높으며 심리적 성장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적게 느끼게 된다. 그리고 심리적 성장환경의 하위변인 중 의사소통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족간에 의사소통이 부족한 것은 위탁아동의 부정적인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며 느낄 수 있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위탁가정 내의 가족들 간에 대화가 많이 필요하며 원만하지 못한 의사소통은 위탁아동들의 위탁가정에서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위탁가정과 관계기관에서는 위탁가족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위탁아동과 위탁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연구를 통한 프로그램 제공이 요구된다.

3.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들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방법에서 자기보고식 질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관적인 태도나 사회적으로 수용될 만한 것에 반응, 기분에 따른 반응 등을 질문지에 나타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질문지만으로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신념이나 정서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며 방문조사 시 상담원과 직접 대면하며 진행하게 되는 경우 대상자들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형식의 조사를 실시할 때 이러한 제한점들을 고려한다면 보다 다양한 연구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을 진행한 시기가 대상 아동들이 새 학년 진학을 앞둔 시기였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대상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상황적, 특성적 요인 등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한계도 있기에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위탁아동이 이러한 성향을 가진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일반화를 높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위탁아동이 느끼는 불안에 양육환경보다는 심리적 성장환경이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심리적 성장환경의 하위변인 중 의사소통변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위탁아동의 불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위탁아동과 위탁부모님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와 공공기관에서는 위탁아동과 위탁부모의 관계개선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방법모색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위탁아동이 어떠한 상황에서 불안을 더 느끼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위탁아동의 불안에

대하여 단순한 불안수준 측정이 아닌 불안요인 분석 및 이에 따른 대안모색을 통하여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그 불안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을 하여 위탁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연숙(2007).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위탁환경과 사회적지지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2007).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고영희(2008).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 불안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민, 정익중(2009). 위탁아동의 친가족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5(4):p.93-120.
- 김명숙(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라(199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불안과의 관계.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리(2007). 제주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와 위탁유형별 양육환경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1984). 가정환경이 어린이의 인성형성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혜(2005). 부모에 대한 애착과 탄력성 및 불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07). 위탁가정 특성, 위탁가정의 가족 및 사회적 지지와 위탁아동 특성에 따른 위탁부모의 양육효능감. 한국가족복지학, 12(2):p. 109-127.
- 김민정(2008). 가족위탁보호 아동의 심리적 적응. 한국가족복지학, 13(4):p. 145-159.
- 김선경(1987). 우울성향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아개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남(1994). 청소년 비행관련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기(1988). **인성요인과 가정환경 요인과의 상관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2007). **위탁가정 아동의 적응과정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유경(2003). **유아기 양육환경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불안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이(2003). **양육환경과 청소년의 애착 및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아·유성경(2003). **상담 및 심리치료 : 구두발표 ; 적응 유연성과 영적 안녕 및 부모 애착 간의 관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3(1):p. 455-456.
- 백정재, 이재연 (1997).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生活科學研究誌, 12(1):p. 71-93.
- 이용승(2000). **범불안장애**. 서울: 학지사.
- 보건복지부(2010). **가정위탁현황통계(2010.12.기준)**.
- 성지혜(2001). **빈곤한 조부모손자녀세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응철(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경미(2007). **아동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심영(2003). **가정위탁서비스의 보호형태별 특성과 위탁아동의 적응에 관한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1(5):p. 131-148.
- 양심영(2009). **친족위탁가정의 심리적 양육환경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6(8):p. 193-224.
- 양주경(2007).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 기제 : 행동억제기질, 가족환경, 역기능적 신념, 불안통제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2010). **2010 조손가족 실태조사 보고서**.
- 옥경희(2005). **조부모-손자녀 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p. 55-65.

- 오승환(2000). **소년소녀가장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 9(1):p. 99-126.
- 유경희(1978).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아동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병기(2010). **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행정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혜경(1986).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나리(2004). **우리나라 청소년의 소외감과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아(2004). **소년소녀가정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주(1995). **특성 불안 및 통제 소재와 스트레스 대처 양식과의 관계 : 고교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애(2005). **가정위탁양육환경에 따른 위탁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자(1995).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경(1999). **소년소녀가장세대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미(2001).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숙(2005). **위탁가정의 가족기능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순(1982).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선희(2009).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희정(1999). **청소년의 자기위로 능력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1975). *가정환경 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코리안 테스트 센터.
- 정혜선·김진숙(2004). 위탁아동의 가정위탁에 관한 경험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2):p. 115-134.
- 조건형(1995). *초등학교 아동의 가정환경과 자아개념과의 상관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숙(2005). Foster home care 경험이 위탁가정 및 위탁대상 아동에게 미치는 심리, 사회적 변화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실천*, 5:p. 21-49.
- 조송자(1977). *가정환경이 학생성격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소희·이경은·권지성(2009). 조손가정 아동의 생활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0(-):p. 97-135.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10). *가정위탁아동패널연구 2기*.
- 최중렬(2005). *아동 위탁가정 유형별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희영 · 정계숙 · 옥경희 · 황혜정 · 최성학(2006). 부모별거초등학생의 별거경험 및 양육요인에 따른 사회·적응력 연구. *아동학회지*, 27(2):p. 101-126
- 허남순(2004). *위탁가정 유형에 따른 실태 및 서비스 개입방향*. 한국복지재단.
- 허연주(2008). *심리적 성장환경이 우울 및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ler, A.(1956).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trans H. L. Ansbacher, & R. R.Ansbacher, New York: Basic Books Inc.
- Barumrind, D.(1967). Child care practice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0(4), 463~465.
- Becker, H. S.(1963).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 Free Press.
- Bloom, B. S.(1964).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John Wiley & amp: SONS Inc New York.
- Clausen, J. A.(1966). Family structure socialization and personality review

- of Child Development in rural Philippine preschool children Intelligence., 15.
- Elder, G. H., Jr.(1963).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1, 18-164.
- Elizabeth, C. A, Orme, T. C., & Rober, J. M, Linda, S. G.(2000). "Self-report depressive symptoms in school-age children at the time of entry into foster care." *Ambulatory Child Health*, (6) 45-57.
- Fahlberg, V. I.(1991). *A Child's journey through placement*. Indianapolis, IN: Perspectives Press.
- Freud, S.(1926). *Inhibition, symptoms and anxiety*, Ibid., 77-174.
- Fritz Riemann(1966). 전영애 역(2007). **불안의 심리**. 서울: 문예출판사.
- Horney, K.(1945). *Our Inner Conflicts: A Constructive Theory of Neurosi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 Kadushin, A.(1980). *Child Welfare Service. Third Edition*: Macmillan Publishing Co., Inc. New York.
- Lavinia Gomez(1997). 김창대, 김지숙 외 공역(2008). **대상관계이론 입문**. 서울: 학지사.
- Martin, J. A.(2000). *Foster Family Care Theory and Practice*: Ally and Bacon.
- Plumer, E. H.(1992). *When You Place a Child*.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Schaefer, E. S.(1959). A circumf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pei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1970), *Manu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Speilberger, C. D.(1972). *Anxiety as an Emotional State in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N.Y. Academic Press, 23-49.

Stahl, P. M.(1990). *Children on Consignment*.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Sullivan, H. 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Abstract>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and Rearing Environment on Anxiety of Foster Care Children

Kim, Jin-kyeong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Jung-hwan

In this research, I studied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and rearing environment on anxiety of foster care children. Everybody experiences various levels of anxiety in various situations. Such an anxiety can be a beginning of maindjusive behavior and it is already known by many scholars that the effect a family - the very first social group a human meets within it is big. Especially,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which is an interaction stage between parents and family members is a very important environment to an individual, and a research about family environment of foster care children and ensuing psychological experiences for healthy growth of foster care children is required considering the fact it influences emotional·social adaptation as well. So, in order to find out about the anxiety foster care children feel living in a different family environment from normal children, this research is to grope ways to reduce feeling of anxiety of foster care children and help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support program and the promotion of effective family fostering protection business those can support for livings in stable

* This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1.

rearing families by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the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and rearing environment of foster care children and studying the effects.

For this, I had selected 83 among the foster care children with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objects and looked at the effect the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and rearing environment have on anxiety, and I used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variant analysis for hypothesis testing.

Proposing the results discovered in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ly, the anxiety level of foster care children residing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owed to be little anxious, and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had relationship with the anxiety of foster care children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was looked at.

Secondly, when I carried out a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find out the influence each of the lower variables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of foster children has on anxiety, love, embrace, respect, mutual affiliation, the communication variable all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anxiety, especially the communication variable had a bigger influence to anxiety over other variables.

Thirdly, only the gender of foster care children influenced anxiety when I looked at the effect the rearing environment of foster care children had on anxiety.

Fourthly, when I looked at the difference of level of anxiety according to lower variables of gender, rearing period, allocation of biological sibling, interchange with biological parents and economical status among the rearing environments of foster care children, girls had a higher level of anxiety over boys by gender.

Summing up, foster care children are influenced more by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than rearing environment and we can tell that the more they are positively aware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the less they feel negative emotion such as anxiety.

Additionally, we can verify the result that the communication variable has the biggest influence among the lower variables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and such a result can be interpreted as insufficient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giving a big influence to negative emotion of foster care children and so, the effort for healthy growth of foster care children through training and development of programs those enable a smooth communication within a foster care family.

정서에 관한 의견 조사

안녕하세요?

다음 질문들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느낌과 생각에 관련한 것입니다. 각 질문에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
심껏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교육학(상담심리) 석사과정

김진경 드림

아래의 문장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쓰는 말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고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문항에 ○표 해주세요. 여기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어느 한 문장을 너무 오래 보지 말고 바로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나는 기분이 좋다.				
2. 나는 쉽게 피로해진다.				
3. 나는 울고 싶은 심정이다.				
4.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해졌으면 한다.				
5. 나는 마음을 빨리 정하지 못해서 실패한다.				
6. 나는 마음이 놓인다.				
7. 나는 차분하고 침착하다.				
8. 나는 너무 많은 어려운 문제가 밀려닥쳐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				
9. 나는 하찮은 일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				
10. 나는 행복하다.				
11. 나는 무슨 일이건 힘들게 생각한다.				
12. 나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13.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14. 나는 위기나 어려움을 피하려고 애쓴다.				
15. 나는 울적하다.				
16. 나는 만족스럽다.				
17. 사소한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18. 나는 실망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다.				
19. 나는 착실한(성실한) 사람이다.				
20. 나는 요즘 걱정거리나 관심거리를 생각만 하면 긴장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른다.				

아래에 나오는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잘 나타내 주는 정도에 따라 우측 숫자 표에 ○표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정답은 없습니다. **문항에 대해 응답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자신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표시하시면 됩니다.**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위탁부모님(양육자)은 나의 의견을 잘 받아주신다.	1	2	3	4	5
2. 나의 의견은 곧잘 무시되곤 한다.	1	2	3	4	5
3. 나는 위탁부모님(양육자)께 사랑받는 편이다.	1	2	3	4	5
4. 나는 다시 태어나도 위탁부모님(양육자)과 함께 살고 싶다.	1	2	3	4	5
5. 나는 될 수 있는 한 위탁부모님(양육자)과 말하고 싶지 않다.	1	2	3	4	5
6. 나는 미움을 많이 받는다.	1	2	3	4	5
7. 위탁부모님(양육자)은 나의 실수를 잘 용서해 주는 편이다.	1	2	3	4	5
8. 나는 위탁부모님(양육자)과 같은 성격이 싫다.	1	2	3	4	5
9. 나는 위탁부모님(양육자)을 존경하지 않는다.	1	2	3	4	5
10. 위탁부모님(양육자)과 말이 잘 통한다.	1	2	3	4	5
11. 우리 집 식구들은 사소한 일에도 서로 말다툼 하는 일이 많다.	1	2	3	4	5
12. 나는 어른과 대화하기가 어렵고 괴롭다.	1	2	3	4	5
13. 위탁부모님(양육자)과의 대화는 자유롭지 못하다.	1	2	3	4	5
14. 나도 커서 우리 위탁부모님(양육자)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1	2	3	4	5
15. 위탁부모님(양육자)과 상의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위탁부모님(양육자)은 공부보다 건강이 제일이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1	2	3	4	5
17. 위탁부모님(양육자)은 공부를 포함한 모든 일에 관심이 적다.	1	2	3	4	5
18. 위탁부모님(양육자)은 나를 믿고 있으며, 대부분 내 뜻대로 한다.	1	2	3	4	5
19. 나의 위탁부모님(양육자)은 나를 미워하십니다.	1	2	3	4	5
20. 나의 위탁부모님(양육자)은 나를 좋아하십니다.	1	2	3	4	5
21. 나의 위탁부모님(양육자)은 부모로서의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	1	2	3	4	5
22. 위탁부모님(양육자)과의 대화는 자유로운 편이다.	1	2	3	4	5
23. 나의 생각을 위탁부모님(양육자)께서는 잘 받아 주십니다.	1	2	3	4	5
24. 우리 가족은 서로 간에 불만이 많은 편이다.	1	2	3	4	5
25. 어떤 일이라도 위탁부모님(양육자)과 상의 할 수 있다.	1	2	3	4	5
26. 우리 집 식구는 모두 모여서 정답게 이야기하는 때가 많다.	1	2	3	4	5
27. 우리 집 식구는 서로 간의 관계가 원만한 편이다.	1	2	3	4	5
28. 위탁부모님(양육자)과는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다.	1	2	3	4	5
29. 우리 집 식구들은 서로 같이 이야기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1	2	3	4	5
30. 나는 위탁부모님(양육자)을 존경하는 편이다.	1	2	3	4	5
31. 위탁부모님(양육자)은 내가 하는 것은 다 들어 주십니다.	1	2	3	4	5
32. 나의 의사소통은 하나마나다.	1	2	3	4	5

수고하셨습니다.

양육환경 조사 문항지

아동의 개인 신상과 양육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례관리계획서를 참고하는 방식과 양육자 및 아동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조사자께서 직접 기입해주세요.

※ 이 부분은 학생이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아동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2. 아동은 현재 몇 살입니까?

- ① 14세() ② 15세() ③ 16세() ④ 17세() ⑤ 18세()

3. 아동의 위탁유형은?

- ① 일반위탁가정() ② 대리양육가정() ③ 친인척위탁가정()

4. 아동은 현재 생활하고 있는 가족과 지낸지 얼마나 됐습니까?

-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⑤ 5년 이상 10년 이하() ⑥ 10년 이상()

5. 현재 몇 명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까?

- ① 2명() ② 3명() ③ 4명() ④ 5명 이상()

6. 가족 구성원 중 아동의 친형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7. 아동이 현재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부모사망() ② 아버지사망/어머니가출(재혼)()
③ 어머니사망/아버지가출(재혼)() ④ 부모이혼()
⑤ 부모 행방불명 또는 질병() ⑥ 경제적 이유()
⑦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수감() ⑧ 가정폭력/아동학대()
⑨ 기타()

8. 아동은 현재 부모님과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9. 아동이 부모님과 만난다면 횟수는 어느정도입니까?

- ① 1년에 1번() ② 6개월에1번() ③ 3개월에 1번()
③ 1달에 1,2번() ④ 만나지 않는다()

10. 위탁가정의 주거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사글세() ④ 영구임대아파트()
⑤ 기타()

11. 위탁가정의 월소득은 얼마입니까? (수급비용 및 후원 포함)

- ① 월100만원 이하() ② 월 150만원 이하() ③ 월 200만원 이하()
④ 월 200만원 이상()

감사합니다.